

제주 삼성 어린이집

Samsung House for Children in Cheju

삼우설계+도우건축

Designed by Samoo Architects & Engineers, Dowoo Architects

제주도...

제주도에 사는 이들은 물에서는 이들을 육지 사람이라 부른다. 육지 사람들은 졸업여행을, 신혼여행을, 효도여행을 그 곳으로 간다.

제주 삼성 어린이집은 삼성생명 보험(주)이 벌이는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프로젝트이다. 대지는 남쪽으로 24m계획도로(현 14m도로)를 사이에 두고 삼성혈을 마주하고 뒤로는 APT단지들을 접하고 있다. 근처엔 제주자연사박물관이 있다.

제주시는 관광지이다. 앞엔 삼성혈이다. 심의가 요구되었고 원색이 제한되었다. 규모에 따른 대지의 법적 제한은 적었지만 건축심의, 인근지역 문화재에 따른 도(道)사전 승인, 예민하게 제기되는 인접한 APT주민들의 민원 등은 부담이기도 했다. 충분함 이상의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해결책에 가까게 가는 길이었다.

대로에 접한 대지 여건으로 건물은 도로와 멀리한 안쪽에 배치되고 외부 놀이공간을 감싸는 ㄱ자형태로 바닥을 잡았다. 주출입은 남쪽대로에 두고 서비스 동선과 주차는 좌측으로 접한 이면도로를 통하도록 했다. 전체적인 규모, 세부 실면적,

외장재, 색채는 계획단계 이전에 정하여진 사항들이었다. 현관과 계단실을 축으로 삼고, 사이의 홀을 통하여 좌우 보육실을 이용한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다워야 한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평면과 입면에 도입된 곡선은 어린이들에게 부드러움으로 다가설 수 있게한다. 입면에 사용된 원, 기울어진 사각형, 물결모양, 부분적으로 사용된 원색은 어린이의 호기심 요소이며 건물의 액센트 역할을 한다. 같은 반경의 두원이 어긋나게 만나며 이루는 주 Mass는 입면에서 이질재료로 구분되어지고 좌우로 Box가 중첩되면서 저층부를 이룬다. 부분적으로 사용된 유리블록은 창문들을 연결해주고 부드러운 빛을 만든다.

Mass의 점진적 삭제는 안정감과 변화감을 갖게하며 애써 갖다 붙인다면 한라산의 닳은꼴이랄 수도 있지않을까! 주 외장은 드라이비트 마감이며 일부 제주산 화산석 벽돌을 사용하여 지역성을 표현코자 하였다. 기대 이상 어울려 주었고 자칫 한가지 재료가 가질 수 있는 단조로운 느낌을 없애주기도 했다. 통일화된 투시형 담장도 어린이집을 돋보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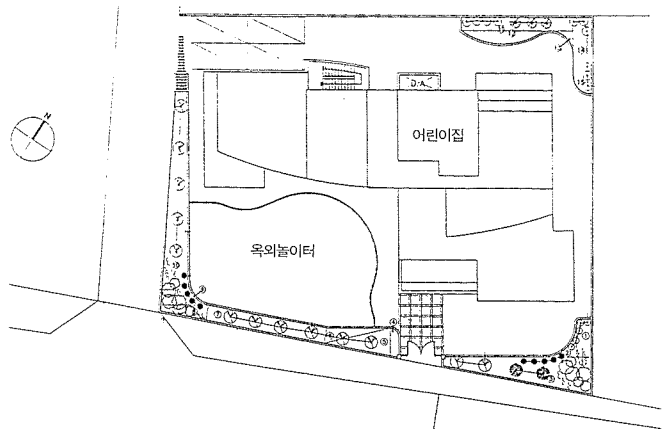
좋은 건축은 사용자, 건축가, 시공자가 함께한다.
이곳을 사용하는 이들이 불편해 하지 않기를 바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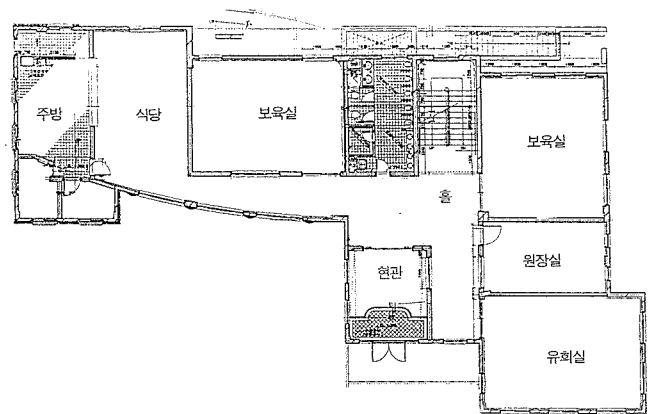
위 치	제주시 이도1동 1692-22	건축면적	413.6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건 폐 율	36.85%
용 도	노유자 시설(보육시설)	연 면 적	982.10㎡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용 적 륜	77.40%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조경면적	56.12㎡
대지면적	1,12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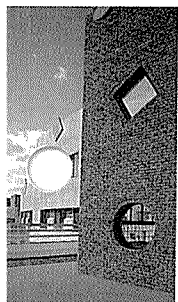
남측전경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테라스와 서측 벽면



남서측 전경



1층 복도



2층 테라스에서 올라다 본 모습